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11화 : 반간계(反間計)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지만 고백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어쩌겠는가, 현실이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자신이 현세가 아닌 이준이라고 우겨본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두자.’

연희가 돌아간 후 이준은 까슬까슬한 종이를 무심히 펼쳤다. 정신이 사나울 때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였다.

현세는 한참동안 도면을 그리고 대열을 어떤 식으로 맞추면 좋을지 정리해나갔다. 자정이 넘도록 붓질을 이어나가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어떤 예감이 스쳤다.

‘봉 형을 노리던 그 놈을 만나봐야겠어.’

현세는 쥐고 있던 모필을 내려놓고 ‘자객’을 만나기 위해 처소를 나섰다.

놈을 가둬둔 곳은 이중으로 문이 잠겨있었다. 예상하던 바였다. 감히 봉 형의 목숨을 노렸으니 당연한 처사였다.

순간,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동학군 하나가 죽창으로 가로막으며 물었다.

“여긴 어떤 일이여? 너, 아직 안 잔겨?”

아니나 다를까, 철중이었다. 그는 몹시 걱정스런 표정으로 현세를 훑어 내렸다.

귀신들린 사람 취급하던 철중의 태세전환에 현세는 약간 당황했다. 아마 현세의 발차기를 지척에서 목격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요. 문 좀 열어줘요.”

“그... 두령 헌티 허락은 받은 거여?”

현실의 강철중은 보기보다 겁이 많았다. 어떻게 이곳 백산까지 따랐는지는 몰라도 그는 새가슴에 간장종지만한 간덩이를 품고 있었다.

현세는 의도적으로 팔짱을 끼고 바닥을 툭툭 쳤다. 그다음 차례가 되고 싶으냐는 무언의 압박처럼 보일법한 행동이었다.

“내가 두령 호위를 맡게 됐다는 소리는 들었죠?”

“그, 그랬어? 어여 들어가 봐!”

과연, 사내들의 세계에서는 단연코 주먹이 최고였다.

“고마워요, 철중이 형.”

현세는 팔짱을 풀고 철중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무리 속에 든 영혼이 10년은 더 묵었어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거기다 갓 승진한 지금, 우쭐거린다는 소리는 사양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얼굴의 절반은 시퍼렇게 부어오른 남자가 모로 누워 웅크리고 있었다. 목이 꺾일 정도로 후려 맞은 터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어떤 진술도 받아놓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다.

현세는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놈의 어깨를 응시하며 말을 툭, 던졌다.

“안 자는 거 다 알아.”

“!”

산란기마냥 강가를 거슬러 튀어 오르는 연어가 연상되는 어깨였다. 그는 현세가 들어선 순간부터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현세는 한쪽 입매를 끌어올리며 앞발로 남자의 어깨죽지를 슬쩍 밀었다.

“잠시 일어나 봐.”

장유유서는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이었다. 현세의 데이터에 존재하는 웃어른은 동학군 3인방과 목공 아재들, 그리고... 철중이 형 정도이려나.

남자는 끄! 소리를 내며 몸을 이쪽으로 비틀었다. 쌓아둔 짚단을 신경질적으로 집적이며 눈을 부라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푸르죽죽하게 멍든 얼굴에 갈고리눈을 뜬 얼굴은 정말이지 볼품없는 인상을 풍겼다.

“새파랗게 어린놈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오호라. 이 동네 사람이 아니구나. 현세는 남자의 어조에서 약간의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사하는 억양으로 미루어보아, 이쪽 전라도 지역 인간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시꺼멓게 늙은 너님은 이곳까지 어떤 일이야?”

현세는 양보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중동에 파견 갔을 당시, 이지키엘(미군 동료)이 자주 써먹던 포로 골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당시 이지키엘 그 녀석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포로가 피를 토할 정도로 열 받아 죽는 모습을 즐기곤 했다.

‘어디, 약이나 좀 올려볼까?’

현세는 약간 웃었다. 한데, 현세가 미소 지을수록 남자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어리다고 깔본 대가는 썼다. 지푸라기 위에서 죽은 생선처럼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딱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뭐, 왜 웃어? 어디 고문이라도 하려고? 해봐!”

고문까지 건디려는 남자의 배포에 현세의 입꼬리가 사정없이 올라갔다. 그럼에도 두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등등했다.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아저씨.”

남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물론 멍 때문에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에서 두려움이 여실히 나타났다.

기세싸움부터 이미 게임 끝이었다. 그럼에도 남자는 바락바락 발악을 해댔다.

“그러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줄 알아? 천한 것들! 제 분수도 모르고 날뛰다가 죽을 것들! 똥내나 풍기는 소보다 못한 버러지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켜? 어디까지 갈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마!”

현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노래를 감상하듯 고개를 까딱거렸다. 어디 클럽에서 랩 가사를 음미하는 디제이처럼 리듬 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이!”

남자는 하도 기가 막혀서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었다. 저 놈은 미쳤다. 그런 생각만 뇌리 속을 떠돌아다닐 뿐이었다.

악의에 가득 찬 저주를 받아먹은 현세는 국어책 윗쪽 나직이 받아쳤다.

“아저씨네 가족들은 저기 한양에 잘 있어? 우리가 그쪽에 곶나폴 하나 안 심어 뒀을까? 보기보다 순진하네, 아저씨. 그래가지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수나 있겠어? 지금 바깥에선 아저씨 눈부터 파내자고 난리야. 눈깔만 떼내서 가족들에게 안겨 주면 표정이 어떨까? 아, 카메라가 없는 게 아쉬워. 정말 아쉬워.”

현세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마를 짚었다. 그 모습에 남자는 초단위로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다.

“우리 가족들이 한양에 있는 건 어찌 알고? 너, 누구야!?”

멍청하긴. 언더커버로써의 성공은 얼마나 그 쪽 영역에 녹아드느냐에 달려있었다. 그것은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이기도 했다.

현세는 이 동네 사투리도 구사하지 못하는 멍청이를 고용한 윗동네 양반님네들이 우스워 죽을 지경이었다.

“아저씨 집에 연로한 노모도 있지?”

“이 죽일 놈이!”

남자는 제 몸뚱이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정신력 하나로 현세에게 덤벼들었다.

현세는 픽, 웃으며 가볍게 남자의 공격을 피했다. 곧이어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현세가 서있던 측벽에 부딪히면서 고꾸라졌다.

현세는 남자의 근성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효자 납셨네. 네 가족들이 봤으면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겠어요, 아저씨.”

이지키엘, 그때는 욕해서 미안하다. 현세는 부들거리며 왈칵, 핏물을 뱉어내는 남자를 향해 쏘그리고 앉아 시선을 맞추었다.

순진하긴. 온갖 점집에서 기본적으로 내뱉는 소리가 바로, ‘집에 아픈 사람이 있지?’라는 문장이었다. 가족을 건드리면 그 누구라도 열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현세의 수에 아주 쉽게 걸려들었다.

“뭐, 뭐든 말 할 테니 우리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

“그게 부탁하는 태도야, 아저씨?”

저 놈은 미쳤다. 남자는 확신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리 앓된 얼굴을 하고 그런 표정, 말을 쏟아낼 수 없을 터였다. 사실 봉준을 공격하기 전에 눈을 마주쳤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던 차였다.

남자는 다소 누그러진 기색으로 입술을 달싹거렸다.

“전봉준 그 자가 네 가족이라도 돼? 왜 그렇게 싸고도는 건지 이해할 수 없군. 그 자가 너희 농민들을 전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지?”

“니들 손에 죽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

“...”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현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는 듯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짚단이 쌓인 곳에 앉아 제대로 숨을 골랐다. 현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대답을 기다렸다. 오늘 밤을 지세운대도 원하는 답을 들을 작정이었다.

달무리가 뿌연게 번지기 시작할 무렵,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엽사(사냥꾼) 출신이야. 실력이 꽤 좋아서 고부사건 이후로 반란군에 들어가라는 명을 받았지. 기회를 봐서 주동자를 처결하는 게 내 임무였고.”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의문이 일었다.

“아저씨는 높으신 놈들한테 뭘 보장받고 이리 충성이야? 다 같은 백성이잖아. 사냥꾼이나 농민이나 뭐가 다르지?”

“네가 말했잖아. 아픈 노모가 있다고...”

정말이지... 이 세계는 서민이 살아남기에 너무나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비웃기를 거듭하던 현세의 표정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 밤공기의 서늘함을 만나 무척이나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중간보고는 누가 맡았어? 그 놈들이 아저씨만 단독으로 투입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쪽에 심어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말해야 할 거야, 아저씨.”

안 그러면 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압력이 공기를 빠듯하게 채워나갔다.

“그, 그게 무슨 소리지?”

“말 그대로야. 두 번 씩이나 설명해야 알아듣나?”

정곡을 찌르는 현세의 질문에 남자의 호흡이 흐트러졌다. 정말 이놈은 뭐하는 놈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은 덤이었다. 고작해야 농민의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텐데 말이다.

“마, 말하면..., 우리 식구는 건드리지 않을 건가?”

원래부터 건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현세는 어깨를 으쓱이며 너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결국, 남자의 입에서 동학군에 숨어든 몇몇의 간자들이 속속들이 튀어나왔다. 수천 명이 모였으니, 그것을 가려 낼 재간이 없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했다.

현세는 암 덩어리 같은 놈들의 정보를 전부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 그림을 그렸다.

‘뭐였더라...? 아, 그렇지!’

역시 10년이나 젊어진 뇌는 달라도 뭐가 달랐다. 현세는 약 5년 전, 특공대에 합격하기 위해 펼쳤던 ‘경찰학 개론’을 떠올렸다. 정보, 보안 파트 어디쯤 반간계(反間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지!

‘적의 간첩을 거꾸로 이용하는 계책. 적의 첩자를 포섭하여 아군의 첩자로 이용하거나 첩자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을 속인다.’

현세는 스스로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빨리 동학 3인방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저씨는 동학군이 승리한 후에 풀어줄게. 뭐, 실패한대도 죽이지는 않을 거야. 우리 봉 형은 나처럼 썩지 않았거든.”

남자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눈앞의 어린놈이 미친 것 같기는 해도 거짓을 고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고맙군.”

현세는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남자의 어깨를 털어주고는 자리를 벗어났다. 지금당장이 사실을 알리고 역이용 할 기회를 잡는 것이 최선이였다.

내일이면 백산 대회가 열린다. 나아가 삼남지방을 전부 접수한 뒤, 전주성을 함락할 예정이였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이전에 최대한의 유혈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개미처럼 모여든 농민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이자 동지가 아닌가.

현세는 주먹을 짹 말아 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뻑뻑이 들어찬 별무리들이 금강석을 흩뿌린 듯 요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어보자고.’